

보도설명자료 (‘12. 1. 12.)

수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목 : 연합뉴스 “UAE 10억배럴 유전에 한국 우선
참여권 없었다”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요지 (‘12.1.12. 연합뉴스)

- ① ‘11.3월 정부가 UAE 아부다비와 맺은 MOU상 10억배럴 이상 생산 광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획득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며, 단순히 참여기회를 부여한 것에 불과함
- ② 최대 100% 지분확보가 가능할 것처럼 발표된 3개 미개발 광구의 참여 폭도 부풀려진 것임
- ③ UAE가 한국 비축시설에 원유 600만배럴을 무상 저장하기로 한 것이 한국이 별도 예산 없이 전략 비축유를 확보하고 UAE 또한 저장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는 것도 아전인수격 해석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

- ① ‘11.3월 정부가 UAE와 맺은 MOU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한 것임. 아부다비 정부가 유전개발과 관련 우리나라와 같은 참여 기회를 보장한 사례는 없었음.
 - ※ 현재 UAE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극소수 국가의 업체만 참여하고 있음
 - 동 MOU상 한국기업에 최소 10억배럴이상의 생산 광구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금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메이저 회사들과의 광권 연장 협상결과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보장된 것임. 이러한 면에서 우선적 참여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3개 미개발 광구의 지분 확보 규모에 대해서도 당시 설명했던 대로 최대 100% 지분 획득을 위해 현재 협상이 진행중임

○ 3개 미개발 광구에 대해서는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금년 상반기중 본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③ UAE 측에 비축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구 획득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관행으로 우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 우리측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대신 비상시 비축유를 활용할 수 있어 7천억에 달하는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우리측이 요구하는 광구를 획득할 수 있음

※ 일본 정부도 UAE 측에 2010년부터 377만 배럴의 비축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음

☞ 자료문의 : 지경부 자원개발전략과 전민영 과장(02-2110-5530)
지경부 자원개발전략과 김정두 사무관(02-2110-5526)